

2017년 수주POOL도 좋아보이는 두산중공업

코멘터리

조선의 수주는...

- #1 IRISL이 현대중공업으로 발주한 14,000teu 4척과 현대미포조선과 계약한 MR탱커 6척이 클락슨에 공식 기재 되었습니다.
- #2 대우조선해양은 오랜 고객 Maran Gas와 LNG-FSRU 1기 본 계약과 LNG선 2척 옵션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해양과 관련해서는

- #3 현대중공업 Chevron으로부터 2013년 수주한 Rosebank FPSO가 유가하락에 따라 FID가 지연되다가, 결국 지난주 공시를 통해 공식 계약취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Chevron의 이에 대한 멘트는 프로젝트 상업성을 끌어올리고 리스크를 낮추는 FEED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힘들지만 향후 재발주가 가능합니다.

역시 연말의 두산중공업은 수주 등 뉴스가 많습니다.

- #4 이집트 국영발전사 UEPC와 CEPC로부터 1,600억원의 터빈과 발전기를 수주했습니다.
- #5 보령화력발전 3호기 성능개선 공사 1,600억원을 수주했습니다. 2016년 미세먼지 문제로 기존 20년 이상 노후 발전소들의 성능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중 첫번째 수주입니다. 최소 7기의 개보수가 남은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동사가 상당수를 수주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6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실증단계)가 2017년3월 드디어 착공됩니다. 터빈은 두산중공업만이 납품합니다. 실증단계 80MW를 거쳐, 시범단계 400MW를 거쳐, 확산단계에서는 2GW의 풍력터빈 설치가 기대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연말까지 사우디 파디힐리 1조원, 인도 보일러 2.4조원 수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내 수주 여부에 따라 주가도 단기에 흔들리겠지만, 결국 다 잔고에 들어올 물량들입니다. 더구나, 두산중공업의 2017년 수주POOL도 베트남, 남아공, 터키 외에도 국내 개보수와 풍력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외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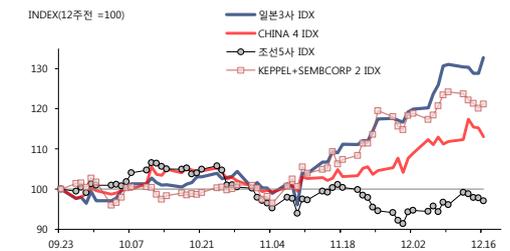
- #6 두산밥캣의 벨기에 법인이 체코법인에게 유럽/중동/아프리카 사업권을 3,836억원에 양도한다는 공시입니다.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유럽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국면입니다. 2017년 두산밥캣의 실적에서 유럽 조정 결과가 얼마나 반영될지 지켜보는 것이 투자포인트입니다.

대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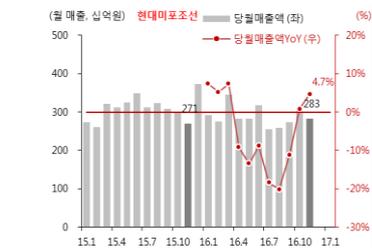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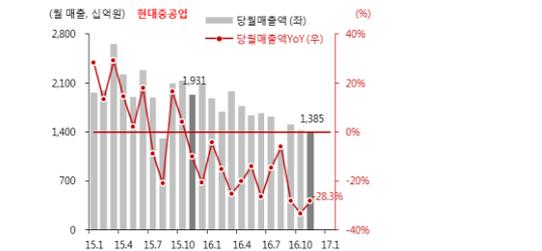
▶ 유가와 달러지수: 달러와 유가 디커플링 상황



▶ 유가 반등 및 강달러에 강하게 반응한 일본, 중국 조선



▶ 11월 매출 현대중공업 YoY -28.3%, 현대미포조선 YoY +4.7%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치수 123p, 중고선가치수 75p 제자리

- 신조선가는 파나마스와 핸디막스 벌크선이 상승했지만, LPG선(VLCC)가 2주 연속 \$0.5m 선가 하락
- 중고선가는 전선중 보합인 가운데, 벌크선 리세일 선가가 2주 연속 상승

▽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VLCC의 Rudder에서 크랙 발생

- 과거 1년반 동안 DHT가 인도받던 VLCC에서 크랙(Crack)이 발생되어, 2척은 수리 서비스를, 1척은 리더의 Steel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함
- Design Issue이며, 수리는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전함
- 현대중공업과 ABS에서는 노 코멘트

▽ 현대중, 3년 끝던 2.1조원 웨브론 플랜트 계약 취소

<https://www.highly.co/hi/un4EWuUSeHYB4>

- 2013년 체결했던 미국 웨브론 로즈뱅크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계약을 해지했다고 14일 공시
- 해당 FPSO를 2조1570억원에 수주: 발주처의 최종투자결정(FID)이 나지 않은 수의 계약
- 하지만 3년이 지나 계약 종료일인 지난달 30일까지도 투자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음
- 실제 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입는 손실은 없음
- > 이미 널리 알려진 버려진 프로젝트여서 큰 추가충격은 없었습니다(15일 목요일 주가 0.98%▽).
- > 다만 수주잔고는 120억\$에서 100억\$로 줄었습니다. 2017년 현대중공업의 대형 해양 공사는 Nasr2가 유일합니다.
- > 아래 외신에 따르면 Rosebank는 완전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FEED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SLBM 장착 가능한 한국 해군의 세번째 잠수함 건조 킷 오프

<https://www.highly.co/hl/KPCJCCFhtXTCJ>

방위사업청은 14일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분관에서 건조 착수회의: 장보고-III Batch-I 1, 2번함에 이어 3번함 건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2014년 11월 건조에 들어간 1번함은 2020년을 전후해 실전에 배치될 예정
방사청 관계자는 "3번함의 건조비용은 6300억원으로 건조기간은 7년 남짓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외신 보도

- 뉴스/FACT > 당사 의견

▶ 업황

▶ 해양

▶ Rosebank 계약취소에 대한 Chevron의 코멘트

- Chevron은 Rosebank의 FEED를 계속 진행 중이고, 현대중공업은 Supply Chain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호 관계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
- Chevron과 JV는 프로젝트 가치를 개선시키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FEED를 거쳐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애초 2013년초 현대중공업이 19억\$ 수주: 99,750톤, 100천b/d + 190MCFD, 1.05백만 배럴 저장 용량
- JV 지분은 Chevron 40%, Suncor Energy(캐) 30%, OMV(호주) 20%, Dong Energy(10%): 2016년 Suncor가 OMV의 지분 30%를 인수

△ Shell~Noble, 드릴쉽 용선료 재계약 & 계약유지

- Shell과 Noble은 3기의 드릴쉽들에 대해 2022년 4월과 7월, 2023년9월까지의 장기용선(10년)을 유지하는 대신
- Daily rate를 앞의 2기를 \$434~436천/일 → \$275천/일(IDLE 시 \$185천/일)로, 나머지 1기는 \$200천/일로 낮춤
- Shell은 1기를 730일 동안 IDLE로 개선시키기로 결정
- Noble은 안정적인 현금흐름 등에 긍정적 효과 만족한다고 언급
- 또한 IDLE 기간에 단기 용선처를 탐색 중이라고 전함

△ 브라질 Libra FPSO와 Seipa FPSO 입찰 17년1월 & 로컬컨텐츠 낮춤

- Libra FPSO의 입찰은 2017년 1월16일로 한달 연기되었지만, 2020년9월 생산개시 일정은 그대로
- 180천b/d + 12백만CM/D에, Modec, SBM Offshore, Bluewater, Bumi Armada 등 10개 업체가 경합
- 2015년8월 첫 입찰 이후 로컬컨텐츠를 낮추어 진행: 과거 70% → 25%
- Hull Side의 로컬 건조 조항은 아예 없었고, 탑사이드도 20%~25%로 줄이고, mooring system도 60%로 낮춤
- Libra 컨소시엄의 지분은 Petrobras가 40%, Shell 20%, Total 20%, 중국의 CNPC와 CNOOC가 각각 10%로 구성

▶ LNG

△ Hoegh, FSRU 용선 계약 따냄

- 파키스탄의 Geil(Global Energy Infrastructure LTD)와 지난 목요일 20년+ 5년 + 5년(2차례 5년 연장 옵션)으로 용선 계약 체결
- Geil은 Qatargas와 1.3MTPA의 20년 수입 계약 체결
- Hoegh는 이로써 매년 \$36m의 세전이익을 확보했으며, 얼마전 삼성중공업과 LOI를 체결한 1+3척의 FSRU 중 1호선이 파키스탄에 투입된다고 함
- 파키스탄의 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는 17년초 시작하고, 2Q18 가동 예정

▽ Yamal LNG 프로젝트의 일반 LNG 셔틀 마지막 4척, 중국 후동중화>SHI, 연내 계약

- 중국의 프로젝트 참여 및 파이낸싱 때문에, Hudong-Zhonghua SB가 유력하다는 보도 가운데, 삼성중공업도 여전히 경쟁 중이라고 전함
- NYK와 Itochu가 Yamal 과 15년 용선계약 체결: NYK는 쇄빙 LNG선 15척에 참여하지 못함
- LNG운송을 위한 용선 계약을 따낸 조선사와 선주는
- 쇄빙LNG선 15척은 DSME 건조:
- 일반LNG선 11척 중 6척은 기존선을 활용한 Dynagas(그)가 따냈고
- 1척은 올해 9월 Teekay가 DSME에서 2019년 건조 예정인 선박의 용선을 따냄

(10월5주) ▼ Yamal LNG의 일반 LNG선 11척 중 마지막 4척, 중국 후동중화로

- Yamal LNG는 DSME가 수주해간 Ice-class 15척 외에, 일반 LNG선 11척을 조달 중이며, 마지막 남은 4척 신조를 협의 중이었는데
- Yamal LNG 프로젝트의 주주중 하나인 Petrochian(CNPC의 자회사)의 압력으로 중국 Hudong-Zhonghua SB 수주가 유력해짐
- 프로젝트 주주들은 한국 조선사를 더 선호했다고 전함

2016.12.19 [376호]

한국 조선업 수주설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대우조선, LNG-FSRU 1척 수주 '막판 수주전 총력'

https://www.highly.co/hl/BA9zHLMFP3vKRx

18일 그리스 최대 해운사 안젤리쿠시스 그룹 자회사인 마란가스(Maran Gas Maritime INC.)로부터 17만3400m³(입방미터) 규모의 LNG-FSRU(LNG Floating, Storage & Regasification Unit, 부유식 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설비) 1척을 수주 이번 계약에는 일반 LNG선 2척에 대한 옵션이 포함 대우조선해양과 안젤리쿠시스 그룹 간의 신뢰도 재조명: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수주 절벽과 대우조선해양 상황을 인지하고도 지난 6월 LNG선 2척과 VLCC(초대형 유조선) 2척 발주하는 등 긴 호흡으로

한국 및 경쟁국 주요 수주 소식

▶ Clarksons에 신규 기입된 신조 수주건

12월3주(지난주)

① IRISL → Hyundai Mipo, PTK(49k) 6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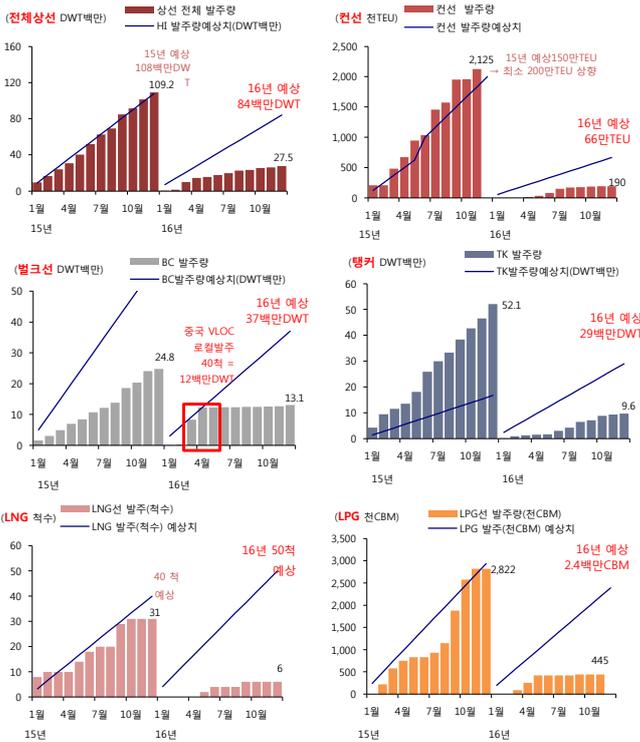
② IRISL → Hyundai HI (Ulsan), CONT(14,500teu) 4척

▲ 이란 IRISL 드디어 신조발주 마무리 국면: HHI 컨선 4척 + 현대미포 MR 6척
- 이란 제재 해제 이후, 연중 계속 들려오던 IRISL의 \$650m 선박 발주가 마무리 국면에 왔다는 소식 발주는 14,400TEU 컨테이너선 4척과 50k MR 탱커 6척: 신조선가는 컨선이 척당 \$110m, MR탱커가 \$35m
- 발주와 관련해서는 HHI는 노 코멘트, IRISL은 몇개 이슈 해결이 남았다고 설명
- 이는, 금융 조달과 현대중공업에 남겨둔 deposit에 대한 협의만 남았다는 설
- Deposit이란, 이란 제재 전인 7년전 10척의 37k 케미컬 탱커와 벌크선 발주(건조 중단)에서 지급한 선수금을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 또한 HHI로의 발주 외에 여타 조선사들과의 신조 계약도 잇다를 것이라는 설명

③ Polaris Shipping Co → Daehan Shipbuilding, PTK(115k) 2척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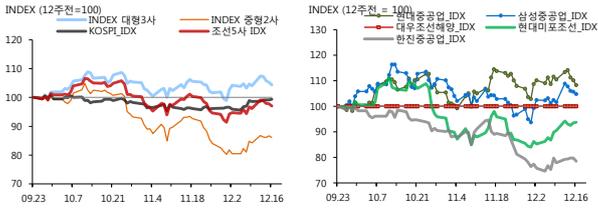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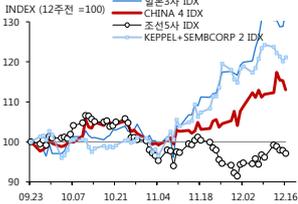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6년12월1주								
BIG6	HHIC-Phil (Subic SY)	16.9.9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TK	115k DWT	2018	2
한국	Dae Sun Shipbuilding	16.11.25	한국	Hanil Express	FERRY	1k Pass.	2018	1
중국	Huangpu Wenchong	16.11.18	북미	Tropical Shipping	CONT	1k TEU	2018	1
16년12월2주								
BIG6	Hyundai Mipo	16.12.5	유럽	Schulte Group	OTHERS	8k cu.m.	2018	1
중국	Jiangnan SY Group	16.11.30	중국	PRIC	OTHERS	0k LOA	2019	1
	Huangpu Wenchong	16.8.1	북미	Tropical Shipping	CONT	1k TEU	2018	1
중국	Jinglu Shipyard	16.10.1	중국	Quanzhou Ansheng	CONT	1k TEU	2018~2019	10
	Damen Changde SY	16.12.5	러시아/CIS	TOS Bunkering Co	OFF-기타		2017~2018	4
	Fujian Funing S.B.	16.12.6	아시아	Unknown Indonesian	FERRY		2018	2
일본	Miura Zosensho	16.5.1	일본	Nippon Gas Line	OTHERS	4k DWT	2017	1
		16.4.1	일본	Unknown Japanese	PTK	1k DWT	2017	1
		16.3.1	일본	Unknown Japanese	PTK	5k DWT	2018	1
				Izumi Kaiun	LPG	1k cu.m.	2017	1
				Kyokai Kaiun	LPG	1k cu.m.	2017	1
				Hatate Kaiun Kk	LPG	1k cu.m.	2017	1
				Heiwa Kaiun Co., Ltd	PTK	5k DWT	2017	1
	Imabari SB (Imabari)	16.12.2	Unknown	Shikoku Kaihatsu	FERRY		2018	2
	MHI Shimonozeeki	16.8.1	일본	Fujitrans Corp	FERRY		2018	1
	Kanda Zosensho	16.8.1	Unknown	Unknown	BULK	4k DWT	2018	1
						6k DWT	2017	1
16년12월3주								
BIG6	Hyundai Mipo	16.12.9	중동	IRISL	PTK	49k DWT	2018~2019	6
	Hyundai HI (Ulsan)	16.12.9	중동	IRISL	CONT	15k TEU	2018~2019	4
한국	Daehan Shipbuilding	16.9.1	한국	Polaris Shipping Co	PTK	115k DWT	2018	2
민영	Taizhou Kouan SB	16.12.8	아시아	PLL	CONT	1k TEU	2018	1
	CSC Jinling Shipyard	16.12.16	중국	Anji Automotive	PCTC	4k Cars	2018	1
일본	JMU Ariake Shipyard	16.12.15	일본	NS United KK	BULK	400k DWT	2019	1
	Kyokuyo Shipyard	16.8.1	아시아	Wang Tat	OTHERS		2018	1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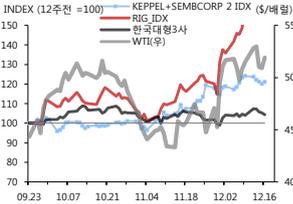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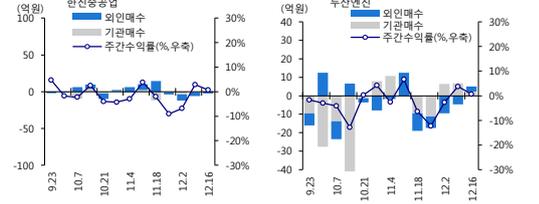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대우조선이 만든 세계 첫 FLNG 천연가스 실제 생산 성공

<https://www.highly.co/hi/gYP09RvTJeFIH>

지난 5월 건조가 끝나 거제 옥포 조선소를 떠난 FLNG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180km 떨어진 카노윗 해상 가스전에 도착해 6개월만에 첫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이후 실제 상업생산에 돌입할 예정 길이 365m, 폭 60m이며 면적은 축구장의 3.6배 규모다. 수심 70~200m에 있는 천연가스를 뽑아올릴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20만톤까지 생산 가능 > 드디어, LNG-FPSO가 실제 가동에 들어갑니다. > 그 퍼포먼스와 효율에 따라, 향후 오일메이저들의 관심을 더 모으고, 투자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잘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중 선박 전담하는 애프터서비스社 출범

<https://www.highly.co/hi/ZeyLrUjz5mRUI>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선박들의 애프터서비스(A/S) 사업을 맡는 현대글로벌서비스가 12일 공식 출범 현대중공업 측에서 제작한 선박 3200척에 수리 애프터서비스를 제공 2022년까지 매출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원 수도 올해 160명에서 2022년 1000명으로 늘어날 전망

△ 현대중 '기술경영' 선언...판교에 그룹 통합 R&D센터 짓는다

https://www.highly.co/hi/BFWlIqb4tA_JW0

기술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하는 경영혁신을 선언하고 그룹의 기술경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조직을 신설 기획실 내에 그룹의 기술경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기술/ICT기획팀'을 신설 경기도 성남시 백현지구 일대에 '현대중공업그룹 통합R&D센터(가칭)' 설립을 추진 성남시와 통합R&D센터 설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사업부지 확정과 R&D센터 건설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0년 준공할 예정 구체적인 규모와 근무 인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

▶ 삼성중공업 보도

N/A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해양, 10월 '희망퇴직 위로금' 700억 지급

<https://www.hiqliv.co/hi/G8lsez9opqPUjw>

지난 10월 희망퇴직을 통해 1267명의 퇴직자들에게 총 699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 일회성 비용은 4분기 손익에 일정 부분 영향
2018년까지 인력 규모를 8000명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희망퇴직은 향후 수시로 진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2년동안 약 3000명을 더 줄여야 함
작년 10월 희망퇴직으로 300명, 12월 정년퇴직으로 500명을 각각 줄였다며
경영 개선안 상의 인력 감축 계획에 맞춰 추가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설명

▷ 대우조선해양, 30대 직원 희망퇴직 접수기간 연장

<https://www.hiqliv.co/hi/T1fFZEJRFoUjCLY>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받은 근속년수 5년차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기간을 연장: 구체적으로 몇 명을 목표인지는 모를
사측 차원에서 연 내로 인력을 1만명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던 만큼 늦어도 오는 31일까지는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
위로금은 근속년수와 임급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별 최대 8000만원

△ 대우조선 이달 29일 자본확충 마무리...자본잠식 벗어난다

<https://www.hiqliv.co/hi/X7ZHsTqS1XZ9IE>

이달 23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매입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
수출입은행이 사들이는 1조원 규모의 영구채 만기는 30년이며, 만기 연장 권한을 대우조선이 가짐: 이자율은 3% 내외
영구채 발행 안건까지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산은과 수은은 각각 1조8천억원의 출자전환과 1조원의 영구채 매입
감자 이후 산은-수은의 2조8천억원 규모 자본확충까지 마치면 현재 마이너스(-) 1조2천억원인 대우조선의 자기자본이 1조6천억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은 900%대로 떨어짐

▷ '5兆 분식회계' 대우조선 고재호 징역 10년 구형

<https://www.hiqliv.co/hi/4AriGMpZsbfUvj>

검찰은 "단일 기업으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 범위를 저질러 수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는데도
회계 지식이 없어 몰랐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1)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

△ 대우조선해양 마곡지구 땅, 마침내 팔린다

<https://www.hiqliv.co/hi/rqSm19H3rqByC>

마곡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조만간 본계약 체결 예정: 계약 상대는 오스텨임플란트, D11블록 4개 필지를 약 470억원에 매각
2013년 2000억원을 투입해 마곡지구 내 3개 블록, 12개 필지 총 6만1232㎡를 매입: 이는 마곡지구 전체의 8%이자, 단일 기업 부지로는 LG그룹 이어 두 번째로 넓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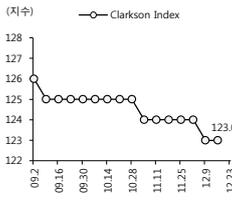
▷ 대우조선, 대손충당률 16.5%...5년래 최고

<https://www.hiqliv.co/hi/H85BPZJnme5u8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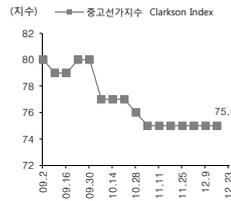
3분기 말 연결 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총 7조 8160억 원:같은 기간 자산총액(15조 2117억 원) 대비 51.3%에 해당
총 1조 2923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 △공사미수금 및 매출채권 9530억 원 △대여금 2233억 원 △미수금 211억 원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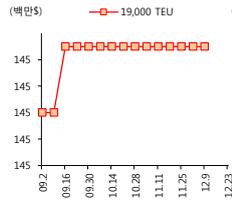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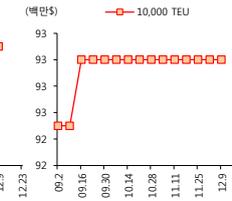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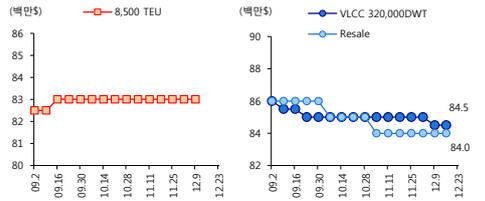
▶메가 울트라막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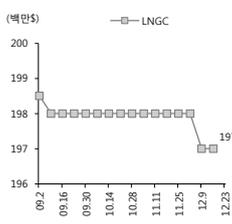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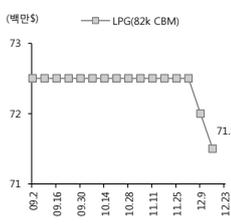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 ▶탱커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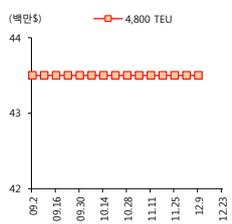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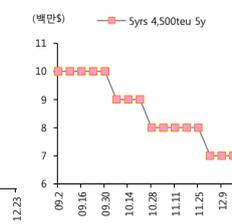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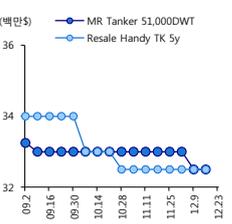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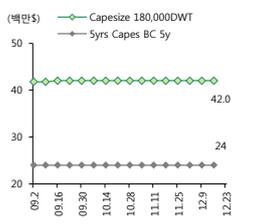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중고선가 4,500teu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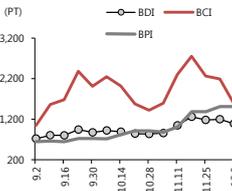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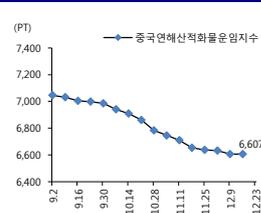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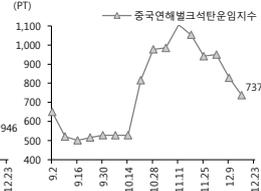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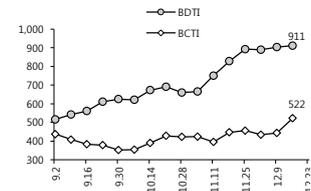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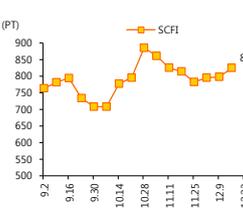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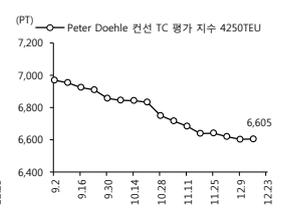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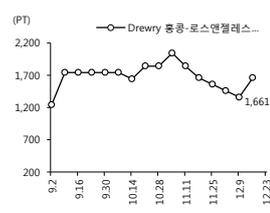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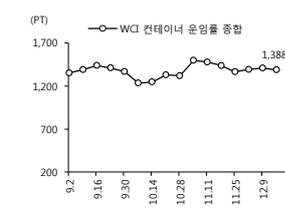
▶탱커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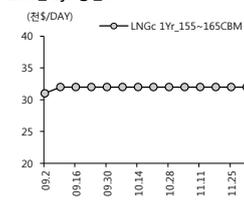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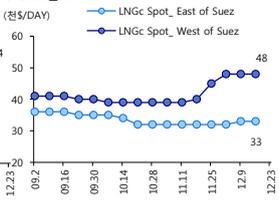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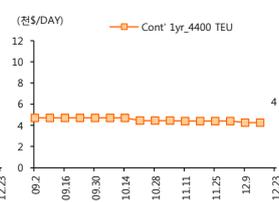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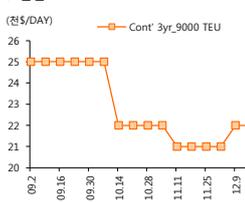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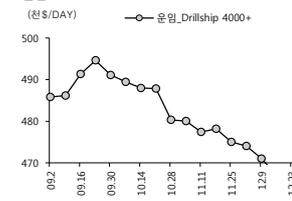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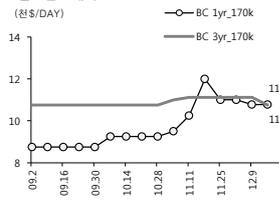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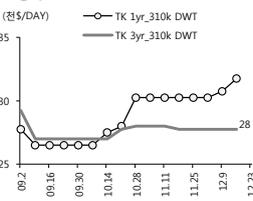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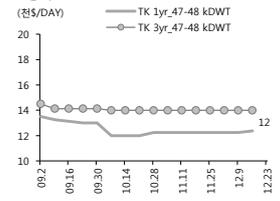
▶벌크선 - 케이프



▶탱커 - VL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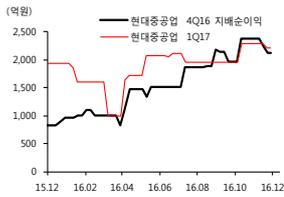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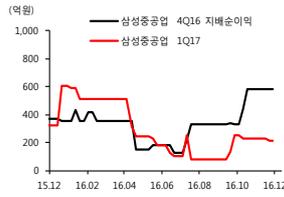
2016.12.19 [376호]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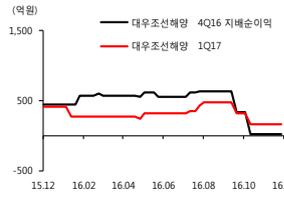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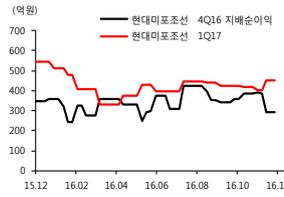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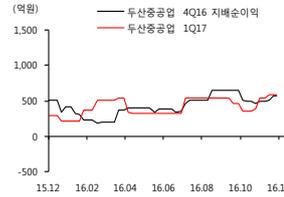
▶ 대우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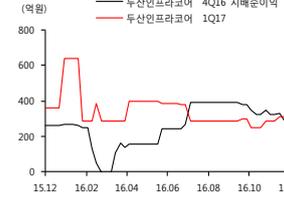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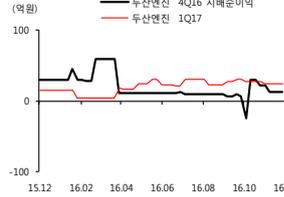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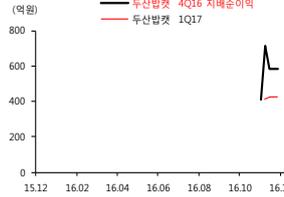
▶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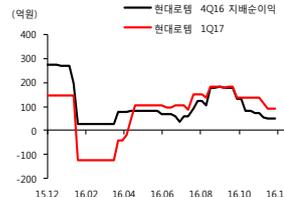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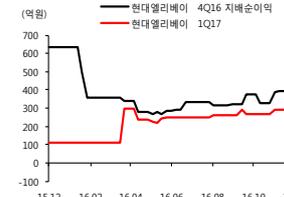
▶ 두산bant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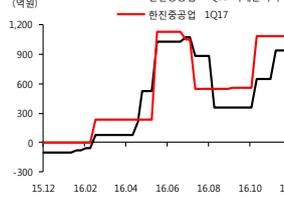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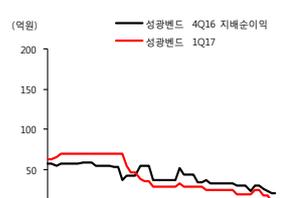
▶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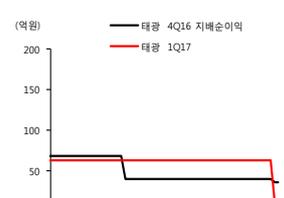
▶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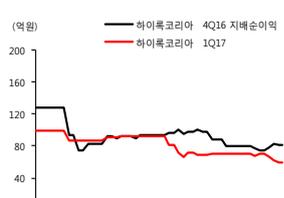
▶ 성광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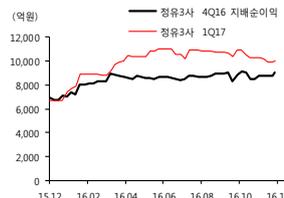
▶ 태광



▶ 하이록코리아



▶ 정유3사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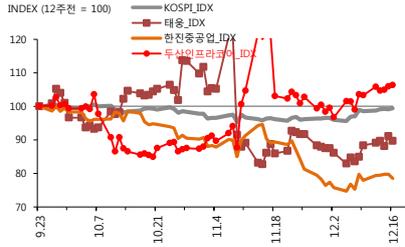
그룹	종목	2016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6.11.12	16.11.19	16.11.26	16.12.03	16.12.10	16.12.15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6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8,624	10,864	12,198	11,970	12,976	13,034	13,034	13,207	13,167	13,167	10%	1%	11.4	149,500
	삼성중공업	260	-19	-110	-220	-93	-52	-52	-1	-44	-44	적지	적지	-209.5	9,280
	대우조선해양	11	14	-83	-1,702	-2,588	-2,588	-2,588	-2,588	-2,588	-3,076	적지	적지	-1.5	4,480
	현대미포조선	8,629	10,506	10,684	10,973	11,051	11,267	11,040	10,891	10,855	10,855	-1%	-4%	6.4	69,100
	한진중공업	313	701	800	863	896	896	896	763	763	763	-12%	-15%	4.4	3,395
두산	두산중공업	1,534	929	1,170	1,023	1,215	1,462	1,462	1,476	1,528	1,528	49%	5%	17.1	26,100
	두산인프라코어	1,175	1,477	1,482	1,507	1,555	1,588	1,607	1,568	1,502	1,502	0%	-5%	5.6	8,440
	두산엔진	391	1,646	1,919	2,096	2,075	554	107	-875	-875	-875	적전	적전	-3.7	3,210
기계	현대엘리베이터	471	230	2,126	2,100	1,946	992	992	921	921	921	-56%	-7%	62.0	57,100
	한국항공우주	2,745	2,902	2,902	2,908	2,702	2,702	2,706	2,701	2,701	2,701	-7%	0%	25.6	69,200
피팅	성광벤드	511	489	370	315	257	257	225	184	172	172	-45%	-33%	53.9	9,280
	태광	483	475	475	475	475	475	475	475	208	208	-56%	-56%	39.7	8,240
	하이록코리아	2,648	2,448	2,292	2,235	2,156	2,156	2,094	1,954	1,954	1,954	-13%	-9%	11.0	21,400
정유	SK이노베이션	20,396	21,538	21,636	20,412	20,780	20,749	20,653	20,635	20,694	20,775	2%	0%	7.3	152,000
	GS	7,150	6,880	7,378	7,814	7,889	7,993	7,882	7,880	7,776	7,776	0%	-3%	7.0	54,600
	S-Oil	11,055	11,683	11,950	11,942	11,219	11,192	11,153	11,172	11,097	11,097	-7%	-1%	7.4	82,300

그룹	종목	2016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6.11.12	16.11.19	16.11.26	16.12.03	16.12.10	16.12.15	2016	2017	2016 PBR	
조선	현대중공업	203,504	211,889	213,854	219,419	224,699	224,720	224,720	224,835	224,766	224,766	6%	5%	0.7	
	삼성중공업	24,341	24,687	25,052	25,474	28,565	16,923	16,923	17,121	17,125	17,125	0%	1%	0.5	
	대우조선해양	4,073	3,916	2,952	2,499	3,405	3,405	3,405	3,405	3,405	3,172	-97%	11%	1.4	
	현대미포조선	93,494	98,877	102,250	104,311	104,285	104,266	104,266	105,246	105,778	105,778	10%	6%	0.7	
	한진중공업	13,899	13,631	13,917	13,990	13,771	13,771	13,544	13,544	13,544	13,544	6%	10%	0.3	
두산	두산중공업	32,745	32,016	32,339	32,227	32,639	32,820	32,820	32,488	32,557	32,557	5%	6%	0.8	
	두산인프라코어	10,705	10,922	10,929	10,959	11,029	10,767	10,830	10,730	10,803	10,803	14%	8%	0.8	
	두산엔진	8,873	10,742	11,041	10,709	11,113	9,989	9,795	8,795	8,795	8,795	-10%	1%	0.4	
기계	현대엘리베이터	27,095	28,039	30,014	31,270	31,270	29,545	29,545	29,545	29,545	29,545	3%	17%	1.9	
	한국항공우주	14,315	14,475	14,467	14,445	14,274	14,274	14,260	14,263	14,263	14,263	19%	21%	4.9	
피팅	성광벤드	16,989	16,984	16,862	16,712	16,537	16,537	16,574	16,574	16,578	16,578	1%	2%	0.6	
	태광	16,997	16,997	16,997	16,997	16,997	16,997	16,997	16,997	16,729	16,729	1%	1%	0.5	
	하이록코리아	22,852	22,745	22,471	22,471	22,317	22,317	22,002	21,687	21,917	21,917	9%	9%	1.0	
정유	SK이노베이션	187,477	187,488	187,592	186,616	186,210	186,283	186,283	186,140	186,206	186,197	11%	11%	0.8	
	GS	72,298	72,023	72,788	73,651	73,590	73,824	73,824	73,722	73,405	73,405	11%	10%	0.7	
	S-Oil	54,763	55,748	56,014	56,101	55,263	55,279	55,279	55,300	55,218	55,218	20%	18%	1.5	

출처: Dataguid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두산인프라코어, 태웅, 한진중공업



당사 관할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



▶ 기계 업종 뉴스

두산기계3사 등

▲ 두산중공업, 이집트서 6년 만에 발전설비 수주...1600억원 규모

<https://www.hiqliv.co/hi/WTL8pTdZybA4t>

올해로 준공한 지 23년이 지난 보령화력발전 3호기에 대한 성능개선 공사를 1천600억원에 수주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핵심 기자재의 성능을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해 발전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감축 등 환경 개선에도 기여
 지난해 6월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정부가 주관하는 500MW 표준화력발전소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국책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실증 진행
 향후 보령화력발전 3호기의 보일러, 터빈 등 주기와 각종 보조설비의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성능보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해
 2019년 5월까지 성능개선 공사를 완료할 계획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연간 27만t 이상 줄일 수 있고, 연료비는 연간 120억 원을 절감
 향후 4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내 500MW 표준석탄화력발전의 성능개선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와 동남아 등 해외 발전소의 성능개선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
 현재 국내에는 20기의 500MW 표준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1993년 준공된 보령화력발전 3호기는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설계, 기자재 제작, 건설, 시운전을 시행한 국내 최초의 500MW급 석탄화력 발전소

▲ 두산중공업, 이집트서 6년 만에 발전설비 수주...1600억원 규모

<https://www.hiqliv.co/hi/iKnYv2RMx5kht1>

이집트 국영발전사인 UEPC와 CEPC로부터 1600억원 규모의 터빈과 발전기 공급에 대한 수주통보서(NoA)를 접수
 아시아트 화력발전소와 CEPC가 건설하는 카이로 웨스트 화력발전소에 2020년 4월까지 650MW급 터빈 및 발전기를 각각 1기씩 설치, 시운전 수행
 제너럴일렉트릭(GE), 지멘스, 미쓰비시하타타파워시스템(MHPS) 등 글로벌 경쟁사를 제치고 수주해 의미가 큼
 2010년 약 4000억원 규모의 아인 소크나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공급 및 설치 공사를 수주한 이후, 6년만의 수주

△ 서남해 해상풍력 내년 3월 착공...현대 EPC-두산 터빈 공급

<https://www.hiqliv.co/hi/EVaCb0zRXyw0t>

서남해 해상풍력이 착수 7년만에 드디어 내년 3월 착공: 시행사인 한국해상풍력은 10일 서남해 해상풍력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040억원을 유상증자
 한국해상풍력은 한전 25%, 한수원·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각 12.5%로 구성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전북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서 3단계로 나뉘어 추진
 1) 실증단계의 목적은 해상 테스트베드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 내년 3월부터 2018년까지 수심 10~11미터의 7.5km² 면적에 80MW 발전기 설치;
 2) 시범단계는 트랙레코드 확보 및 사업모델 개발이 목적: 수심 11~18미터에 400MW 발전기 설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
 3) 확산단계는 대규모 단지개발 및 상업발전: 수심 20~35미터에 2000MW 규모의 발전기를 설치 & 2020년 이후 진행, 민간기업 자율 참여
 2010년 11월 정부가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
 & 2011년 11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북도, 한전, 발전6개사, 터빈제작사 등이 개발협약을 체결 2012년 12월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가 설립
 하지만 사업자 이탈 및 어업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 진척은 더디게 진행
 실증단계 사업은 현대건설이 전체적인 EPC를 맡고, 두산중공업이 터빈을 공급: 두산중공업은 3MW급 TC-II와 TC-S 종류의 터빈을 공급

△ 여수화력 1호기 CFBC로 재탄생

<https://www.hiqliv.co/hi/xgVrNAmYaavtp>

1975년 준공된 여수화력 1호기가 해체 및 대체건설 공사를 거쳐 340MW급 최신 순환유동층(CFBC) 발전소로 다시 태어남
 여수화력 1호기는 설비 노후화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체건설이 반영된 설비
 CFBC 발전소로 2013년 8월 착공해 3년여간 건설공사: 두산중공업이 보일러와 터빈 등 주기를 공급
 > 두산중공업의 CFB 보일러 트랙 레코드가 쌓여갑니다.
 > USC보일러와 CFB보일러 시장에서 세계 TOP2 메이커로써, 꾸준한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를 기대합니다.

△ 두산팍켈, 해외법인 중속회사간 사업권 양수도 계약

<https://www.hiqliv.co/hi/Xmx2y2znmUSVkc9>

두산팍켈은 중속회사인 벨기에 법인이 다른 중속회사인 체코법인에게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했다고 16일 공식
 총 3836억5392만원 규모로, 양도목적은 경영효율화
 > 두산팍켈 유럽 법인의 경영효율화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7년 실적에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보여줄지가 관련 포인트입니다.

▶ 두산인프라코어 중국서 '고객만족도 1위' 선정

<https://www.hiqliv.co/hi/a8gMssTtUgg1N>

'중국 시장 브랜드 고객만족도 조사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것으로, 중국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갖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

큰 기계

△ 현대로템, 2033억 튀니지 전동차 공급 계약

<https://www.highiv.co/hi/B8CVGICXNDR1sQ>

16일 튀니지철도청에 2033억1600만원 규모의 전동차 112량을 공급 계약: 2019년 12월 15일까지

▷ 김승탁 현대로템 사장, 러시아 방문...3조원 규모 고속철 사업 검토

<https://www.highiv.co/hi/3D3IHvL0pIjOv>

최근 태스크포스(TF) 팀을 이끌고 러시아 첼랴빈스크를 방문해 보리스 두브로브스키 주지사와 협상을 진행
첼랴빈스크주와 예카테린버그주를 연결하는 238km에 지역에 투입할 고속철 사업 참여를 제의
업은 총 규모 한화 3조원(1650억 루블). 현대로템이 참여한다면 토목, 설비부터 열차운행시스템까지 전체를 발주하는 턴키 방식이 될 가능성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며 동력분산식 열차가 투입
루스란 카타로프 부지사는 이 사업에 중국과 독일 업체에도 요청했으며, 그는 특히 한국 기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바
현대로템 관계자는 "러시아의 현장을 살피고, 이야기를 듣는 설명회와 같은 자리였다"면서
"러시아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져서, 우리 뿐 아니라 나라별로 초청한 것 같다"고 설명

△ 현대로템, 9호선 3단계 '전동차 32량' 총 440억원 규모 수주

<https://www.highiv.co/hi/9xigCSVkVjivR>

서울시는 오는 2018년 개통예정인 9호선 3단계 종합운동장~보훈병원 구간 개통에 맞춰 추가차량을 발주
32량의 전동차는 신규 24량(6량 1편성)과 기존에 운행되던 열차를 재편성하기 위한 추가차량 8량(4량 1편성→6량 1편성)
지난해 수주한 70량 가운데 현재 제작 중인 지난 5월 첫 편성 이후로 6편성을 추가로 납품했으며, 내년 12월까지 나머지 42량의 납품도 완료할 계획

△ '말레이~싱가폴 고속철 사업' 수주경쟁 본격화

<https://www.highiv.co/hi/UJeYKbKvVABPy>

15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핵심사업 수주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한국사업단 워크숍을 개최

기타 기계

△ 한국카본, 534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공시)

<https://www.highiv.co/hi/iL7V70bmGYPN19>

현대중공업과 534억4200만원 규모의 LNG선 화물창용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

△ 태광, 주당 50원 현금배당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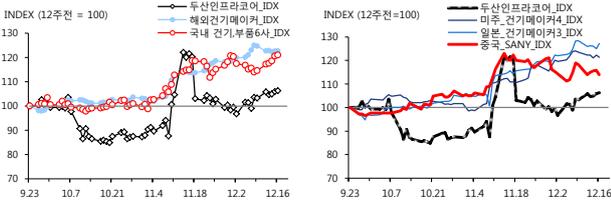
<https://www.highiv.co/hi/hF0nehM39DYeSo>

시가배당율은 0.6%이며 배당금총액은 12억9336만원

2016.12.19 [376호]

건설장비

▶ **두산 vs Global Peer vs 한국 부품** ▶ **건설장비 메이커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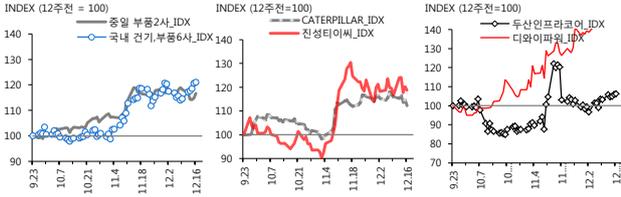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 **건설장비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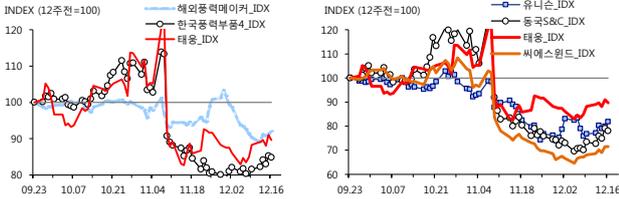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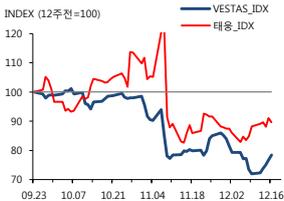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5사 vs Global Peer**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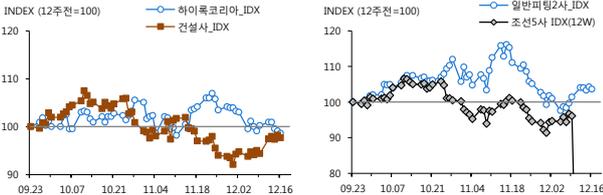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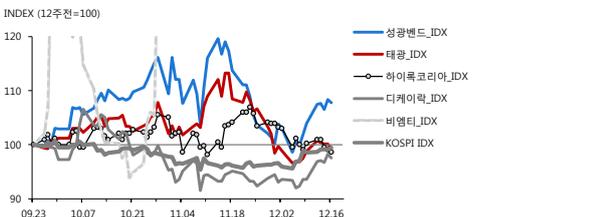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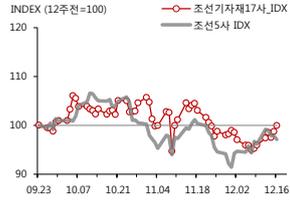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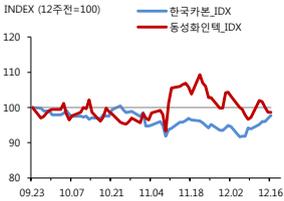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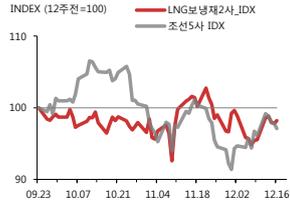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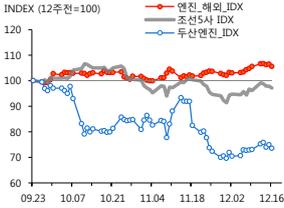
▶ **피팅 및 밸브사들**



2016.12.19 [376호]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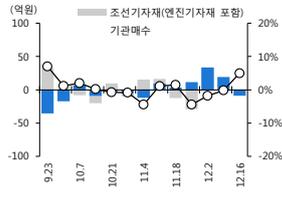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제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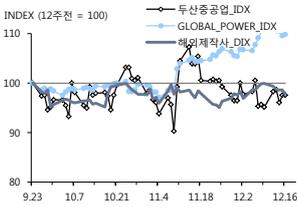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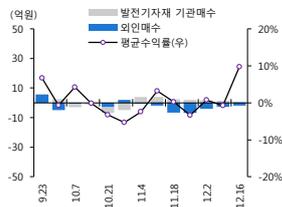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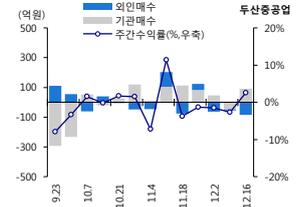


발전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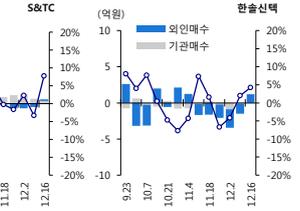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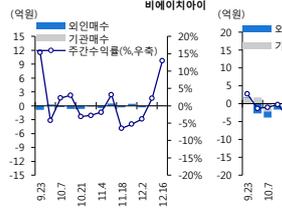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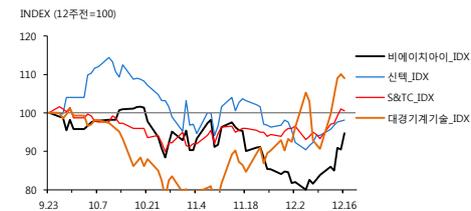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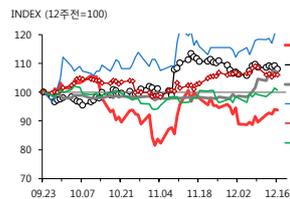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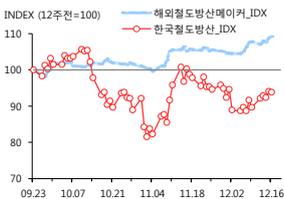


▶ 발전기자재 등



철도/승강기

▶ 철도 vs Global Peer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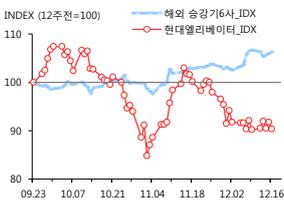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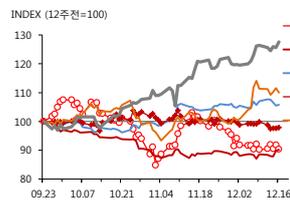
▶ 현대로템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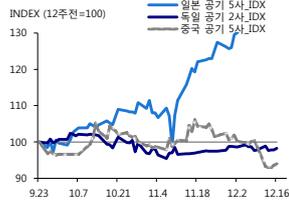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공작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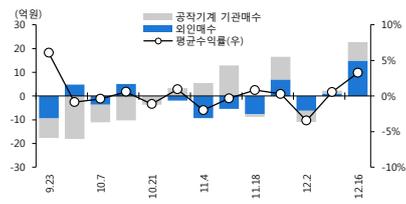
▶ 두산인프라~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조건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4년5월12일부터 적용)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6-09-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8.4 %	11.6 %	-